



## 한-EU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네트워킹의 장

###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환경·에너지관련기술 전시상담회’ 성료

- 지난 2009년 첫 시행 이후 가장 많은 39개 EU 기업 방한
- 600여 명의 최다 국내 기업인들이 1:1 상담, 환경·에너지에 관한 관심 입증

유럽연합 주최로 열린 한-EU 기업간의 비즈니스 협력 도모를 위한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2013 환경·에너지관련기술 전시상담회’가 지난 2009년 첫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참가객이 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6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열린 이번 전시상담회에는 환경·에너지 선진국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14개 EU 회원국에서 39개 기업이 참가하여 자사의 제품과 기술의 우수성을 한국기업에 알렸다.

특히, 국내에서도 녹조와 적조현상이 이슈인 가운데 담수 생태계의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초음파로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을 가진 대표적인 친환경적 솔루션을 가진 ‘LG 사운드’, 국내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제품을 공급한 안드리츠 에너지 & 엔바이론먼트 등이 관심을 끌며 국내기업들과의 1:1 비즈니스 미팅이 잇달았다.

12일 전시상담회 종료 후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EU에서는 가장 많은 39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국내 기업 방문자의 경우 2009년 347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600여 명이 전시상담회장을 방문, 약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관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는 “선진 기술 동향 파악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파트너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유럽 기업은 한국 시장의 비즈니스 문화 및 산업 현황 이해를 통해 차후 한국기업과의 비즈니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자간 니즈를 충족하였다고 평가했다.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은 한-EU 기업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출범, 매년 유럽의 강소기업을 한국에 소개하고 있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엄선, 한국기업들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